

대불청 임원 130여명 쌍계사에서 전진대회

대한불교청년회(회장 정상욱)는 4월 10일부터 11일까지 진주 갑을 가든과 쌍계사에서 '전국 불교청년 임원 전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중앙 회장단 및 임원, 지구·지회 임원단 130여명이 한자리에 모여 전국 지구 및 지회 조직의 현황을 파악하고, 전국 회원들의 지적 데이터를 조직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본인토의 및 발표, TFT(Task Force Team) 교육과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에 대한 브리핑, 모범 지회 법회 운영에 대한 사례발표를 진행하고, 7월 진주에서 있을 전국 불교 청년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향후 대불청의 발전방안 등을 모색키로 했다.

김은경 기자

천태종, 北 영통사에 단정재료 1차 지원

천태종 나누며하나되기운동본부(총재 윤복)는 4월 26일 개성 영통사 복원을 위한 단정재료 1차분을 북한에 보낸다. 단정재료는 총 3차례에 걸쳐 지원되며, 12가지 색깔의 무광 수성도료와 착색제, 희석제, 그래프트지 등 26톤 분량에 달한다.

나누며하나되기운동본부는 또 미안마 서부국경 매송지역 난민촌에 중고컴퓨터 160대를 지원하기로 하고, 14일 대구 대성사에서 전달식을 개최한다. 한국정보문화진흥원으로 부터 인수한 중고 컴퓨터는 16일 부산항을 거쳐 태국 평화재단으로 전달된 뒤 난민촌으로 보급된다.

한·일 불교문화교류대회 6월8일부터 11일 광명사서

제25차 한·일 불교문화교류대회가 6월 8일부터 12일까지 일본 가마쿠라에 위치한 정토종 총본산 광명사에서 '기도와 구제'를 주제로 열린다. 한일불교문화교류협회(회장 법장)와 일한불교문화교류협회의(회장 미야바야시 쇼겐)는 "양국 불교계의 우호 증진을 위해 매년 열리는 교류대회 본 행사를 6월 9일 정토종 광명사에서 개최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8일 요코하마 시내에서 환영회로 시작되는 교류대회는 9일 광명사에 본 행사와 동경시내 사찰 순례, 일본 아와 및 고전무용 시연 등으로 진행된다. 특히 본 대회에서는 '기도와 구제'를 주제로 한 학술세미나와 세계평화를 위한 공동선언문이 발표될 전망이다.

박봉영 기자

20일 장애인의 날 행사 다채

나들이·산행·체육대회·장애체험 등 전국서 열려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불교계 각 복지시설을 비롯한 장애인 단체들이 장애인 세상 나들이, 장애예방 캠페인 등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표 참조)

제천장애인복지관은 17일 제천시 문화회관과 시내 차 없는 거리에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장애인 캠페인 행사를 진행한다. 또 영주시장애인복지관은 23일 영주시내에서 '장애예방 포스터 전시회'를 개최한다.

나들이 행사도 준비됐다. 원주 소쩍새마을은 27일 어린이대공원으로 '세상 나들이' 행사를 갖으며, 강북장애인복지관도 14일 포천 제일유원천으로 '밝은 세상 나들이'를

떠난다. 체육대회도 마련됐다. 강릉시장애인복지관은 16일 경포호수공원에서 '제2회 돌이서 하나되어 원발, 오른 발 걷기대회'를 연다.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함께 참여하는 이 행사에서는 300여 명이 동참할 예정이다. 이밖에 광명사 연호복지원은 25

일 '청각장애인과 함께 하는 한마음 체육대회'를, 의정부시장애인시설 곱두리네집은 24일 신흥대체육관에서 '제2회 징검다리 체육대회'를 개최한다. 시각장애불자 산행모임 대광명인 불자회는 25일 대구 팔공산 갖바위로 산행을 떠난다. 장애인들의 적극

적인 사회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시각장애인 산행대회는 시각장애인 자원봉사자 500여명이 참석한다. 대구개인택시 정병회가 차량을 지원하고, 대불봉사단에서 점심공양을, 대구불교대학, 영남불교대학 봉사단 등이 이들의 눈이 되어준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장애인의 날' 기념 불교계 단체 행사

행사명	일시	장소	주최	연락처
제2회 징검다리체육대회	4월 24일	신흥대체육관	의정부시장애인곶두리네집	(031)829-8294
장애인세상 나들이	4월 27일	용인 에버랜드	소쩍새마을	(033)762-9870
제2회 돌이서 하나되어 걷기대회	4월 16일	경포호수공원	강릉시장애인복지관	(033)643-1801
밝은 세상 나들이	4월 14일	포천 제일유원천	강북장애인복지관	(02)989-4215
장애인차량 및 휠체어 무상 점검	4월 22일	복지관주차장	경주시장애인복지관	(054)776-7522
애인 인식개선 캠페인	4월 20일	광주시 충장로 일대	광주 광산구장애인복지관	(062)943-0420
장애예방 및 홍보 캠페인	4월 17일	구미역 일대	구미시장애인복지관	(054)457-3172
장애예방 및 인식개선 포스터 공모전	4월 23일	영주시내 영주시	장애인복지관	(054)633-6415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장애예방캠페인	4월 17일	제천시내	제천시장애인복지관	(043)652-0900
청각장애인과 함께하는 한마음체육대회	4월 25일	장소미정 광명사	연호복지원	(02)202-5831
전국시각장애인 산행대회	4월 25일	대구 팔공산 갖바위	대광명인복지회	(053)256-0114
장애인세상나들이	4월 23일	광릉수목원	상락원	(02)921-6410

"민·형사 소송하면 엄중문책"

조계종 총무원 호법부

조계종 총무원 호법부는 최근 공고를 내고 사회기관에 고소, 고발, 진정, 탄원 등과 민·형사상 소송쟁의를 일으키는 행위를 엄중 문책할 뜻을 밝혔다.

호법부장 종연 스님 명의의 공고에서 "최근 종단 대내적인 문제나 사찰과 사찰, 승려와 승려사이의 문제로 종단내 사정기관의 시정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사회 기관에 고소,

고발, 진정, 탄원 등의 행위를 하거나 불법부당한 개인의 사욕을 도모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 조작, 고의로 사지 당국에 민·형사상의 소송쟁의를 일으키는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며 "사회기관에 고소, 고발, 진정, 탄원 등과 민·형사상의 소송쟁의를 일으키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 승려법 제46조, 제47조 14호, 종무원법 제25조에 의거해 가차 없이 엄중 문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남동우 기자

제주 4·3사건, 스님 16명 피해

35개 사찰 소각·폐허

제주 4·3 사건으로 35개 사찰이 소각 또는 폐허가 됐고, 스님 16명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불교사연구회 한금순 연구원은 4월 7일 제주도 품림론도에서 열린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 회장 백도웅) 주최 '2004 이웃종교문화이해강좌'에서 '제주 4·3사건과 제주도 불교계의 피해 현황' 사례발표에서 4·3 사건으로 "제주시 11개,

서귀포시 5개, 남제주군 4개, 북제주군 15개 등 총 35개 사찰이 소각 또는 폐허가 됐고, 총살 10명, 수장 2명, 고문 후유증 사망 1명, 일본도피 1명, 행방불명 2명 등 총 16명의 스님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한 연구원은 사찰의 경우 "주로 토한대의 초도화 작전 시기에 피해를 입었다"며 "사찰 소각은 종교 활동의 근거지를 없애버리는 일이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더욱 크다"고 지적했다. 또 "35개 피해 사찰 중 현재 복원된 사찰은 16개, 다른 장소로 이전해 복원된 사찰은 10개"라며 "그러나 아직도 7개 사찰은 복원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스님의 경우 "4·3 사건이 공권력에 의한 한국 현대사의 최대 비극이었음이 규명됐지만, 제주도의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4·3사건 피해 희생자로 신고 된 스님은 아무도 없다"며 그 이유로 "스님들의 직계 후손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남동우 기자

송광사, 고려시대 '속장경' 22일 공개

지난 1월 순천 송광사 사천왕상에서 발견된 <속장경(續藏經)>이 4월 22일 일반에 공개된다.

송광사 성보박물관(관장 고경은)은 <속장경>의 가치 등이 유물에 대한 문화재정의 견해를 받아, 이를 토대로 22-23일 '순천 송광사의 고문헌'을 주제로 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4월 8일 밝혔다.

<속장경>은 대장경을 결집할 때 누락된 것을 모아

1096년(고려 속종 1년)에 대각국사 의천 스님이 편찬한 불경으로, 4000여권의 목록만 있을 뿐 실물은 희귀한 실정이다. 22-23일 송광사에서 열리는 학술대회 '순천 송광사의 고문헌'에서는 이 <속장경>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송광사가 소장하고 있던 경전과 조선시대 사찰에서 간행된 불서 1500여권에 대한 연구결과도 발표된다.

오유진 기자



삼보회 도량인 삼보정사 전경. 최근 지상 4층 규모의 중창 불사를 마무리하고 18일 회향식이 열린다.

'삼보회' 창립 40돌 맞아

'최초'라는 수식어가 자연스럽게 따라붙는 재가불자단체, (사대 한불교삼보회(이사장 윤종길). 오는 4월 24일이면 꼭 창립 40돌을 맞는다.

재가불자산행의 요람이자 불자 인재양성의 산실 역할을 해 온 삼보회가 결성된 것은 1964년. 고이한상 거사가 불자 학생을 위한 장학사업을 위해 삼보장학회를 설립하면서부터 시작된 삼보회 활동은 이듬해인 1965년 삼보학

재가산행단체 '원조' 학회·장학회 등 운영

18일 기념식...불사 회향

이 같은 기반을 토대로 포교, 군 포교, 교도소 포교, 어린이·청소년 포교 등 각 분야에서 지성불교, 생활불교의 토대를 만드는데 전력해 온 삼보회는 1973년 한국불교단체로서는 최초로 '삼보합창단'을 창단, 찬불가 보급을 통한 포교의 전기를 마련했다. 이어 1975년 불교교양대학을 개설해 신도교육에 매진해오던 삼보회는 1980년 '불교어머니회'를 발족, 한국불교 재가산행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2004년, 삼보회가 새로운 변신

을 시도한다. 장학사업과 함께, 어린이·청소년 등의 '젊은 불자 양성'에 역량을 집중한다. 신 사육 2층에 어린이집을 개원하는 것도 중·고등학생회 방당을 개설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디지털 분야에서도 변화를 꾀한다. 40년간 2천5백여 넘게 발행한 탄원, 청담, 관음 스님 등 5백여 명의 법문을 40장의 CD로 제작해 출시한다. 또 2002년 개교한 삼보사이버불교 대학(학장 종법·중앙승가대 총장의 커리큘럼)의 명성을 이어

간다. 삼보회 김민식 상임이사는 "앞으로 중장년층과 청년층이 한데 어우러지는 신형활동을 적극 전개해 제2의 창립기를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삼보회는 18일 서울 삼보정사에서 '창립 40주년 기념식'을 개최한다. 또 이날 법회는 3년간 추진해온 지상 4층 350여 평 규모의 삼보정사 중창불사 회향식도 병행된다. (02)943-2858

김철우 기자

동국대 불교대학원 최고지도자과정 43명

신학회 결성...기금 2억원 조성

불교계를 대표하는 지도자급 스님들과 사회 각 분야에서 내로라하는 재가불자들이 모여 있는 동국대 학교 불교대학원 최고지도자과정. 이 최고지도자과정 학생 43명이 최근 엠베서더 호텔에서 모여 친목모임인 '원우회'를 결성하고 자체 기금 2억원을 모으기로 했다.

이들은 오는 4월23-24일 부부동반으로 신홍사와 낙산사, 건봉사를 돌며 템플스테이를 가질 예정이고, 6월에는 미얀마로 성지순례를 다녀오기로 했다. 자체 기금은 신형활동을 하는데 사용하는 것은 물론, 학교 발전을 위해서도 쓰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한명우 기자



불교방송 사장 후보 공개모집

불교방송의 사장 천거권을 가지고 있는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에서는 불교방송을 이끌어갈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최고경영자 천거를 위한 후보를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1. 천거 대상 : 불교방송 사장(임기 4년)

2. 자격 요건

- 가. 독실한 불교 신도로서 수계를 득한 분.
- 나.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준하여 임용 결정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
- 다. 최고경영자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겸비하고, 불교방송의 경영혁신을 위한 미래 지향적 비전을 가진 분.
- 라. 1943년 6월 12일 이후 출생한 분.

3. 제출 서류

- 가. 이력서(사진 및 관련 경력증명서 첨부) 1부.
- 나. 불교방송 경영계획서(A4지 5매 내외, 10분 발표 분량).
- 다. 주민등록등본 1부.

4. 제출 기간 및 접수

- 가. 제출 기간 : 2004. 4. 19(월) ~ 2004. 4. 23(금) 17:00까지.
- * 우편접수시 당일 도착분에 한함.

나. 접수처 : (우 121-714)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동 140번지 다보빌딩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사무국.
다. 접수 방법 : 제출 기간 내에 서류를 작성하여 직접 접수하거나 등기우편 접수.

5. 심사 방법

- 가.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이사회에서 심사.
- 나.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심사(면접심사 대상자는 개별 통보).

6. 기타

- 가. 본 천거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비공개로 진행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사무국장(02-719-185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